

제주도 토속신들의 역할과 기능

문 무 병*

차례

1. 신들의 고향
2. 신들의 세계
3. 신들의 질서와 저승법
4. 신화적 상상력과 제주문화
5. 신화공원의 가능성

1. 신들의 고향(故郷)

제주인에게 신(神)은 누구인가. 신은 '인간을 그늘려주는' 존재¹⁾이다. 제주인에게 신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먹을 연 입을 연 나수와'²⁾ 주어, 주위에서 생활을 보살피고, '나는 날 생산 차지, 죽는 날 물고, 호적, 장적 차지'³⁾하여 삶과 죽음을 지켜주는 수호신(守護神)인 셈이다. 제주 사람들에게 신은 조상 대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승에서의 삶'을 믿고 의지하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인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 사람들이 1만 8천 신들과 더불어 살아온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제주 사람들의 '태슨 땅'이다. 제주 사람들은 고

* 제주전통문화연구소장

1) '그늘르다'는 표준말 '그느르다' 즉, '돌보아 보살피 주다'라는 뜻이다.

2) '나습다'는 내움다, 나게 하움다, 내어 주다, 먹을 인연 입을 인연 등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다.

3) 당분뜰이에 나타나는 당신 즉, 마을 수호신 기능.

향을 '태스 땅'이라 부른다. '태스 땅'은 태 사른 땅, 자신의 땀줄을 묻은 땅이다. 제주 사람은 태어나면 땀줄을 태워 종이에 싸서 항아리에 담고, 동틀 무렵 삼도전 거리⁴⁾에 나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 둔다. 아기가 피부병이 나면 묻어 두었던 땀줄을 꺼내 피부에 바르면 병이 낫는다고 한다. 이처럼 땅 속에 묻어둔 땀줄은 대지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생명의 근원이다. 모든 생명이 자라나는 곳도, 죽어서 묻히는 곳도 땅이기 때문이다.

먹고 입는 덕도 세경의 덕, 행신발신(行身發身)도 세경의 덕, 사람 죽어 업토감장(掩土勤葬)하기도 세경땅에 업토감장흡내다.5)

제주도에서는 땅을 '세경' 또는 '세경 땅'이라 한다. 세경 땅은 생명의 근원인 땀줄을 묻은 곳이기 때문에 제주 사람은 고향을 '태스 땅'이라 했으며, 고향이란 말보다 '뿌리' 또는 '근원'이란 의미가 함축된 본향(本郷)이란 말을 잘 쓴다. 교포나 외지에 사는 제주 사람들이 죽기 전에 조상의 땅에 돌아오는 귀소 본능(歸巢本能)은 제주 정신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되는 '뿌리(本郷) 의식'이다.

인간과 더불어 살며 인간을 수호하는 1만 8천 신들의 고향을 '본산국', '난산국'이라 하는 말도 결국 '뿌리', '태어난 곳'의 의미를 지닌다. 신의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 버림받고 쫓겨나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겪고 결국 강남천자국⁶⁾의 큰 난리[大變]에 공을 세워 귀향하는 '신들의 내력담'을 본풀이라 한다. 신들의 고향 제주도에는 제주 사람들이 신화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많은 1만 8천 신들의 이야기 즉 본풀이[神話]가 전승되고 있다.

4) 세 갈래 길.

5)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66.

6) 제주도 신화에서 강남천자국(江南天子國)은 중국을 일컫는 말이다. 혹자는 광명천제국(光明天帝國)의 와전이라 하며, 명(明)나라를 높여 '광(光)'을 앞에 붙였다 한다.

본풀이는 ‘본(本)을 푸는 것’이다. ‘본’은 ‘뿌리’, ‘근본’, ‘원리’란 뜻이고, 그 대상을 염두에 두고 말하면, ‘신의 뿌리’, ‘곳의 원리’를 뜻하는 ‘본’이다. 그리고 ‘풀이’는 ‘푼다’는 해석(解釋)·설명(說明)·진술(陳述)이라는 사전적 의미 이외에 ‘한풀이’로서 ‘역사적 해원(解冤)’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신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이야기한다’는 의미에서 서사시(敘事詩)이며 신화(神話)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무속, 신화인 <본풀이> 속에는 제주인의 상상력과 문화, 제주 사회의 내재적인 규율과 법칙, 가치체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신화를 향유하는 신앙민 집단의 미의식이 발현되고 있다.

본(本)은 ‘뿌리’이다. 그리고 ‘태손 땅’이라는 제주인의 본향 의식과 제주인의 신화적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무가 본풀이는 제주 정신 나아가 제주 문화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2. 신들의 세계(世界)

제주의 1만 8천 신들은 어디에 있을까?

곳을 할 때 심방이 요령을 흔들며 인간의 소원을 빌면 하늘 옥황 삼천천제석궁의 신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 그것은 북도 정도 마찬가지로 모두 하늘을 울리는 ‘울복·울장’이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 인간의 주위에서 인간을 수호하는 모든 신을 한 자리에 모시는 것이 곳이다.

심방이 곳하는 마루 한가운데 놓인 초석을 신자리라 한다. 신자리는 ‘우주의 중심’이며, 신자리(神席)를 중심으로 마루 위쪽 천장에서 한 두 척(尺) 떨어진 사방에 제봉(祭棚)을 달아매는데, 이를 당클이라 한다. 당클은 신들의 사는 세계를 바로 곳하는 자리 위에 설치한 소우주(小宇宙)⁷⁾이며, 임시로 마련된 신계(神界)이며, 성소(聖所)라 할 수 있다. 제주도의 큰곳을 ‘4당클곳’이라 하는데 당클을 사방에 매어 하는 곳

7) 문부병, “제주도 곳의 연극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1984, p.14.

8) 위의 글, p.16.

이란 뜻이며, 각 당클을 차지한 신들을 차례로 모셔 굿을 하기 때문에 '두 이레 열 나흘 굿' 즉, 7일 밤, 7일 낮을 이어 하는 길고 긴 곳이다. 4당클은 삼천천제석궁 당클, 열두시왕 당클, 문전·본향 당클, 마을·영신 당클이다. 그러므로 굿청은 성계(聖界)과 속계(俗界)가 공존하는 자리이며, 모든 신들을 불러 모실 수 있는 우주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제1 당클은 삼천천제석궁(三千天帝釋宮) 당클이다. 여기는 하늘 옥황상제 이하 삼천 하늘의 신(天帝)들을 지상에 내려오게 하여 임시로 모시고 있는 신궁이다. 삼천천제석궁은 수직적으로 가장 높은 천상의 세계다. 이 하늘 옥황에는 저승을 차지한 신 '대별왕'과 이승을 차지한 신 '소별왕'의 아버지 천지왕을 비롯하여 농경신 자청비의 남편 '상세경 문도령', 그의 약혼녀 '서수왕 따님아기'가 있고, 열다섯 살까지 아이를 낳게 하고 길러주는 명진국 따님아기가 인간 세계에 내려와 삼승할망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깊은 궁에 갇힌 어머니를 구하기 위하여 팔자를 그르치고 심방이 '삼시왕 초하늘'의 무조 삼형제가 있고, '이하늘 서천 꽃밭'의 이공 꽃감관 꽃생인[聖人]과 그의 아들 '할락궁이', '삼하늘 삼공 알땅 주년국'의 삼공신 '마통이'와 '가문장아기'가 있다. 이 초공·이공·삼공이 머무는 곳을 합쳐 '삼시왕·삼하늘'이라 한다. 지상 세계와 천상 세계인 하늘 옥황 사이에는 가상적인 세계로서 아기씨가 무조 삼형제를 낳아 기른 '불도땅', 악기의 신 너사무 너도령과 무조 삼형제가 만났던 '어주에 삼녹거리', 삼시왕에 걸려 육간제비를 줍고 최초의 심방 선생이 된 유정승 따님아기가 머무는 '서강배포땅', 무조 삼형제의 아버지 주점선생이 머무는 '황금산 도단땅', '굴미굴산 노조방산 아야산 신산꽃' 등 신화 속의 세계들을 망라한다. 이와 같이 삼천천제석궁 당클은 하늘의 신들을 굿을 하여 모셔다 좌정시킨 곳으로 가상적인 소우주를 이룬다. 이 신들을 위한 곳으로는 하늘 옥황 도성문을 열고 신들을 하늘로부터 하강하게 하여 모셔들이는 청신의례로써 초감제→초신맞이→초상계, 날궁전·달궁전[日月神]을 맞이하는 <일월맞이>, 삼승할망, 이공 서천 꽃감관, 구삼승할망 등 모시고 하는 <불도맞이>, 초공본

풀어 <초공맞이>, 이공본 풀어 <이공맞이>, 삼공본 풀어 <삼공맞이> 굿을 한다. 어느 한 신을 맞이할 때는 그 신들을 보좌하는 하위신들과 군졸 잡귀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신들의 행렬은 ‘만승지국(萬乘之國)’ 천제의 행차를 방불케 한다. 천제석궁 당클에서 하는 곳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은 심방이 장고를 차고앉아 하는 ‘젯드리 앉아 살려움’이란 제차에서 신의 위계 순서에 따라 신을 부르는데, 맨 처음 하늘을 차지한 신 옥황상제, 땅을 차지한 신 지보스천대왕(地府四千大王), 산을 차지한 신 산신대왕·산신백관, 바다를 차지한 신 대서용궁(五龍宮) 또는 요왕황제국, 절(寺)을 차지한 신 서산대사·육관대사, 인간 차지의 신 삼승할망, 수복(壽福)의 신 북두칠성의 신 칠원성군, 얼굴 차지의 신 흥진국대별상·서신국마누라, 일월을 차지한 신 날궁전(日宮前)·달궁전(月宮前), 무조신 초공 삼형제(본명두·신명두·살아살축삼명두), 서천꽃밭(呪花를 가꾸는 밭)을 차지한 신 이공(꽃감관), 전상(前生)차지의 신 삼공 등 차례로 신을 부른다.

제2 당클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승 세계의 저승 시왕[十王]과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판관·차사들을 모시는 ‘저승 열두 시왕 당클’이다. 저승 세계는 하늘 옥황처럼 아득히 높은 하늘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아득히 먼 세계다. 여기에는 저승과 인간생명을 차지한 신 시왕(十王)과 차사가 머무는 ‘열두 지옥’이 있다. 제1 진광대왕이 다스리는 도산지옥, 제2 초강대왕의 화당지옥, 제3 송제대왕의 한빙지옥, 제4 오관대왕의 검수지옥, 제5 염라대왕의 발설지옥, 제6 변성대왕의 독사지옥, 제7 태산대왕의 거해지옥, 제8 평등대왕의 철상지옥, 제9 도시대왕의 풍도지옥, 제10 전륜대왕의 암혹지옥이 있고 또 이 시왕 밑에는 몇 개의 대왕과 판관, 사자 등이 있다. 제11 지장대왕은 죄인의 심사를 맡고, 제12 생불대왕은 십 오세 미만의 아동을 관장하고 제13 좌두대왕, 제14 우두대왕은 죄인 심사, 제15 동자판관은 사령의 죄 유무를 최후 판결 처리하여 보낸다. 제16 사자는 위에 있는 모든 신들의 하위신으로 보조관원이라 한다. 그리고 제17 차사는 위에 있는 각 대왕들의 명을 받아

이승에 와서 인간을 잡아가는 신이다. 이 신들이 머무는 저승 열두 시왕 이외에도 액을 막아 사람의 명과 복을 이어주는 목숨을 차지한 신 [冥府使者] 멩감(冥官)이 머무는 '주년국 땅', 그리고 농신과 목축의 신인 세경과 테우리가 머무는 '세경 땅'도 저승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당클에서는 시왕맛이, 요왕맛이, 액막이, 차사본풀이, 지장본풀이, 세경놀이 등이 이루어진다. 이 두 당클의 굿이 끝나면, 삶과 죽음의 문제 즉, 이승에 사는 인간들에 대한 축원과, 저승으로 가는 영개(靈駕; 조상의 사령)들에 대한 천도가 이루어진다.

제3 당클은 집안의 수호신 문전, 마을의 수호신 본향 당신을 모신 세계다. 문전신들은 집안을 지켜주는 신들이다. 집안의 문전신으로 '남선비', 남선비의 마음 착한 본부인으로 조왕신이 된 '여산부인', 남선비의 본처를 서천강 연화못에 떠밀어 죽인 마음 악한 첩으로 변소의 신 '척도부인'이 된 '노일저대귀일의 딸'이 있고, 남선비의 막내 아들 '늑디생이'를 비롯한 7형제가 집안을 지키고 있으며, 또 집안에는 고팡을 지켜주는 '안칠성', 뒷뜰에 모시는 '밭칠성' 등이 있다. 울타리 안을 지키는 오방토신, 집안 출입로의 신 주목(정주목)지신·정살(정낭)지신, 울타리의 신 울담지신·내담지신, 난가리의 신(노적신)인 늘굽지신이 있다. 문전신과 조왕신과 칠성신은 집안의 부(富)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조상의 제사 명절을 지내기 전에 문전제를 한다. 이 당클에서는 문전본풀이, 칠성본풀이, 본향다리, 마지막 석살림굿으로써 군웅만판 등의 굿을 한다.

제4 당클은 집안 조상의 영개(靈駕)를 모신 마을·영신 당클이다. 저승길을 닦아 저승 상마울로 떠나 보낸 영혼을 '므을', 저승으로 보내주어야 할 영혼을 '영신'이라 한다. 이들은 모두 죽은 조상의 사령(死靈)들이다. 이 당클에서는 굿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몰놀이'를 하여 신들이 돌아갈 차비를 하고, 모든 죽은 조상님들 모두 미련 없이 돌아가십사하는 '영개돌려세움'의 제차가 있다. 그리고 문전→조왕→칠성 등에 비

념을 하는 '각도비념'을 하여 나머지 떨어진 신들을 돌려보내는 송신의례로서 도진, 그리고 재차, 삼차 떨어진 심들을 돌려보내는 가수리, 뒤 맞이굿이 끝나야 비로소 1만 8천신들을 맞이한 굿이 끝나는 것이다.

따라서 큰굿은 본풀이를 굿본으로 하여 삼천천제석궁에서 마을·영신 당클에 이르는 신의 위계에 따라 차례대로 신을 청하여[請神] 맞이하고[迎神] 대접하고[供奠] 축원[祝願]하며 신을 즐겁게 하고[娛神] 보내는[送神]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저승의 신들을 현실 세계에 모시고 '맑고 공정한 저승법'으로 이승의 무질서—부정·병·한·악—등을 구축하거나 해소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제주 사람들의 저승 세계와 저승의 모든 신들이 등장하여 신들의 권능, 역할과 기능에 따라 인간의 문제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는 것이다.

3. 신화의 질서와 저승법

본풀이는 신의 영험과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 본풀이는 우주적 질서이며 신의 질서이다. '귀신의 본을 풀면 신나락 만나락하고, 생인의 본을 풀면 백년 원수되는 법'이다.

<본풀이>는 굿본이다. <본풀이> 속에 굿의 원리가 있다. 따라서 <본풀이>는 굿법이며, 신법이고 저승법이다. 본풀이가 저승법과 신의 질서이기 때문에 사회통제 기능을 지닌다. 굿법으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굿이다. <본풀이>에는 “그때 낸 법으로 어떻게 하게 되었다”는 굿법 즉, 신화 시대[그때] 낸 법으로 오늘날 어떤 굿[儀禮]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반드시 삽입되어 있다.

태초에 천지는 혼돈(混沌)이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금이 생겼다. 하늘에서는 청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흑이슬이 솟아나, 서로 합수되어 음양상풍으로 만물이 생겨났다. 먼저 별들이 자리를 잡았으나 어둠은 계속되었다. 천황달이 목을 들고, 지황달이 날개를 치고, 인황달이 꼬리를 쳐 우니, 갑을 동방에서 먼동이 뜨기 시작했다. 이때 하늘의 옥황상제 천지왕이 해도 둘 달도 둘을 내보

내어 천지는 활짝 개벽이 되었다. 그러나 하늘에 해와 달이 들어 떠 있으므로 낮에는 백성들이 더워 죽고, 밤에는 얼어죽었다. 초목과 새, 짐승이 말을 하고, 귀신과 인간의 구별이 없는 무질서한 세상이었다. 천지왕은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고민하던 중 해와 달을 하나씩 삼키는 꿈을 꾸었다. 하늘의 천지왕이 땅의 총맹부인과 천정배필을 맺고자 지상으로 내려오니, 총맹부인은 수명장자 집에서 쌀을 찌다 천지왕을 위해 밥을 짓는다. 수명장자는 마음씨가 고약하였기 때문에 쌀에 모래를 섞어 찌 준다. 밥을 먹다 돌을 씹은 천지왕은 벼락, 우뢰, 불의 사자를 보내 수명장자집을 불태워 버렸다. 불탄 집에 사람이 죽었으니 원혼을 달래기 위해 굿을 했는데, 이것이 <불찍굿>이다. 천지왕은 함궁일을 받아 천정배필을 맺고, 박씨 두 알을 징표로 주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총맹부인은 두 아들을 낳았다. 두 형제는 박씨를 심어 이 즐거움을 타고 하늘 나라에 올라간다. 두 아들을 맞은 천지왕은 이승은 마음씨 착한 형 대별왕이 차지하고, 저승은 마음씨 나쁜 동생 대별왕이 차지해서 이승과 저승의 질서를 바로 잡으라 한다. 이승을 차지하고 싶은 동생 소별왕은 꽃가꾸기 시험을 제안한다. 형의 꽃은 자라 번성꽃이 되고 동생의 꽃은 시들어 검늬유꽃(이울어가는 꽃)이 된다. 그러나 형이 잠든 틈에 꽃을 바꿔 놓아, 결국 동생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하고, 대별왕은 저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마음씨 나쁜 동생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하고 보니, 하늘에는 해도 돌, 달도 돌이라 백성들이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얼어죽었다. 새·짐승이 말을 하고 귀신과 생인의 분별이 없었다. 게다가 인간 세상에는 살인·역적·도둑·간통이 많고 질서가 말이 아니었다. 소별왕은 혼란을 바로 잡기 못해 형에게 간청한다.

마음 착한 형 대별왕은 뒤에오는 해와 달을 쏘아 동해와 서해 바다에 던졌다. 새·짐승은 송파 가루 닷말 닷되를 뿌리니 혀가 굳어져 말을 못하고 사람만 말하게 되었다. 귀신과 생인은 저울로 달아서 백근이 차는 것은 생인, 못차는 것은 귀신으로 분별하였다. 이리하여 자연의 질서를 바로 잡아 주었으나 인간 세상의 질서는 바로잡아 주지 않고 가 버렸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인간 세상에 역적·살인·도둑·간음이 많은 법이고 저승법은 맑고 공정한 법이다.

굿은 저승의 맑고 공정한 법으로 이승의 무질서—악·부정·병·죽음—를 바로 잡는 것이다. 굿의 <초감제>는 자연과 인간의 세계에 질

서를 부여한다. 천지혼합(暗黑)에서 천지가 개벽(光明)되고, 인간세계가 열린다. 따라서 <초잠제>는 ‘나뉘고 시직’을 분명하게 ‘굽 가르느(區分하는)’ 곳의 서막이다.

제주도의 굿은 세 개의 뿌리가 되는 3본풀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다.

- I. 신불휘—신(神)의 근본—초공 본풀이—무조의 내력
- II. 꽃불휘—꽃(花)의 근본—이공 본풀이—생명의 원리
- III. 노불휘—일(業)의 근본—삼공 본풀이—전생의 업보

1) 초공본풀이

임정국 대감과 김진국 부인은 아이가 없었으나 황금산 도단땅 주점 선생을 찾아가 원불수룩을 들여 자지명왕 아기씨가 출생한다. 부모님은 아기씨를 살창에 가두고 천하 공사를 살려 떠난다. 살창⁹⁾에 갇힌 아기씨는 황금산 도단땅 주점선생과 결연을 맺고 중의 자식을 잉태하게 되어 쫓겨나게 된다. 건지오름에서 건지를 올리는 성년식을 갖고 주점 선생을 찾아간다. 중은 살림을 차릴 수 없으니 불도땅에 가서 삼형제를 낳으라 한다. 아기씨는 불도땅에 가서 삼형제를 낳았고 삼형제는 서당에서 심부름하며 귀동냥으로 공부하여 과거 급제에 급제한다. 양반 삼천 선비는 삼형제의 어머니를 죽이고 삼천천제석궁 깊은 궁에 가둬 버린다. 삼천 선비의 흉계로 어머니를 잃은 신화의 전반부는 무조 삼형제가 이승에서 겪는 시련이며, ‘속(俗)의 세계’를 설명한다. 글도 장원, 활도 장원하여 과거에 급제하였지만, 삼천천제석궁에 갇힌 어머니를 살려

9) ‘살창’은 천하김진국 대감과 지하자진국 부인님이 하늘 공사, 지하공사를 살려갈 때, 아기씨를 가두어 놓고 간 ‘살창’이다. 살창은 ‘마흔 여덟 빗골장, 서른 여덟 모람장, 스물 여덟 고무살창’이라 하는데, 이는 살창의 모양을 형용한 것이다. 굿의 제장에 지전을 오려 장식하는 것으로 무대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제장이 아기씨를 가두고 있는 곳이지만 살창을 두른 제장은 신들을 모시고 있는 곳이 되었다.

내기 위하여, 과거를 반납하고 심방이 되는 과정이 신화의 후반부를 이룬다. 이 후반부에 ‘신 뿌리’로서 굿의 원리가 있다.

외할아버지를 찾아가니, 배석(拜席) 자리를 내어 주고 어머니를 찾으려면 황금산 도단땅 아버지를 찾아가라 일러준다. 그때 낸 법으로 심방이 굿하러 가면, 신(神)자리라 해서 돛자리를 깔아 주는 법이다.

황금산 도단땅에 아버지를 찾아갔다. 어머니를 찾으려면 팔자를 그려 심방이 되라 한다. “나를 찾아오며 보았던 것이 무엇이나?” “하늘(天)·땅(地)·문(門)입니다.” 하고 삼형제가 대답하자, 아버지 주점 선생은 동그란 낫쇠에 ‘天地門’이라 새겨진 천문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천문은 굿을 할 때 신의 뜻을 묻는 무점구가 되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어머니는 삼천천제석궁 깊은 궁에 갇혀 있으니 북을 만들어 북을 울리라는 것이다. 삼형제는 두 이레 열 나흘 동안 북소리를 울려 굿을 하여 어머니를 살려내었다.

<큰굿>은 두 이레 열 나흘 삼천천제석궁에 북을 울리는 것이며, 삼천천제석궁에 갇힌 어머니를 구했던 데서 비롯되었다. 서광배포땅 어주애삼녹거리에 큰집을 지어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는 ‘이승 삼하늘’을 차지하게 하였다. 북·장고 등은 너사매너도령에게 지키게 하였다. 너도령 삼형제는 약기의 신이 되었다. 이와 같이 어머니를 구하고 양반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무조 삼형제는 천문·상잔·신칼과 같은 무점구와 북·장고와 같은 무악기를 만들고 굿하는 법을 마련하였고, 하늘에 올라가 저승 삼시왕(三千天帝釋宮)을 차지한 신이 되었다.

<초공본풀이>의 마지막 이야기는 삼형제가 양반의 원수를 갚고 삼시왕에 올라가는 도중, 남천문밖 ‘유정승 따님 아기’를 만나 ‘파란 공에 육간제비’를 준다. 유정승 따님 아기는 이로부터 눈이 멀어 죽었다 살았다 하며 예순 일곱 살이 되니 눈이 뜨이고 신안(神眼)을 얻는다. 아랫마을 자부장자 집 아이가 죽어 가는 것을 살리는 굿을 하여야 하는데 굿법을 몰랐다. 유씨 부인은 <시왕맞이> 도중 혼절하여 해매다가 북소리를 따라가니, 거기는 서강배포땅이요, 무조 삼형제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궁전이 있었다. 마침 삼형제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내려와 있었다. 유씨 부인은 삼시왕에게 엎드려 빌었다. 전생 팔자를 그려쳐 심방이 되려는데 굿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삼시왕은 유정승 따님 아기가 굿을 하며 얼마나 역가를 올렸는지 그녀의 정성을 저울로 달아 본다. 백 근이 못 찼다. 그로부터 유씨 부인은 어머니의 궁에서 도를 닦았다. 그제야 삼시왕에서 약밥약술을 먹여 심방이 되는 의식을 행하고, 어인타인을 찍어 심방임을 인정해 주면서 무당서 삼천 권과 삼천기덕·일만계기·궁전궁납을 내어 주었다. 유씨 부인은 돌아와 굿을 하여 자부장자의 딸을 살려냈다. 유씨 부인이 받은 무당서 삼천 권은 굿법을 기록한 책이며, 지금도 그 굿법에 따라 굿을 한다. 유씨 부인은 최초의 심방 선생이다.

유씨 부인 이야기는 제주도 무속사회에서의 심방의 세습과 굿법의 시작을 말하여 준다. 그리고 양반의 딸을 심방으로 만들어 팔자를 그리치게 함으로써 양반에 대한 복수를 하였다는 무조 삼형제 '삼시왕'의 신의(神意)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심방이 되는 의식으로 심방이 될 사람에게 <약밥약술>을 먹이고, 수심방이 삼시왕을 대신하여 심방의 자격을 인정하는 <어인타인>을 찍어 주는 당주연맞이 <신굿>의 굿법이 마련되었다.

2) 이궁본풀이

옛날 김진국과 임진국이 한 마을에 살았다. 김진국은 가난했고 임진국은 천하 거부로 살았다. 두 집안은 자식이 없어 동개남은중절에 들어가 백일 불공을 드려 김진국은 아들을 낳고 임진국은 딸을 낳았다. 이름을 사라 도령과 원강암이라 지었다. 김진국과 임진국은 사돈을 맺어 어린 사라 도령과 원강암이를 구덕혼사(婚姻)를 시켰다.

원강암이는 스무 살에 임신을 하였는데, 사라 도령에게는 서천꽃밭 꽃감관을 살러 오라는 옥황상제의 전갈이 왔다. 부부는 함께 서천꽃밭으로 향해 출발했다.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원강암이

는 아이를 뱀 몸으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원강암이는 사라도령에게 더 이상 걸을 수 없으니, 천하거부 제인장자 집에 자기를 종으로 팔아 두고 가면 기다리마 하였다. 어머니는 삼백냥, 아이는 백냥에 팔고 이별을 하며, 사라도령은 아들을 낳으면 <신산만산할락궁이>, 딸을 낳으면 <할락댁이>라 이름을 지으라 하고, 얼레빗을 반으로 꺾어 부인에게 증거물로 주고 서천꽃밭으로 떠났다.

원강암이는 종살이를 하며 아이를 낳아 신산만산할락궁이라 이름을 지었다. 세월은 흘러 할락궁이도 열 다섯 살이 되었다. 어느 날 할락궁이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해 캐어묻자, 어머니는 아버지가 주고 간 얼레빗을 넘겨준다. 할락궁이는 메밀 범벅 세 덩이를 가지고 어머니와 작별하고 아버지를 찾아 떠났다.

할락궁이가 집을 나서자, 제인장재 집에 기르는 날쌔 개 천리둥이, 만리둥이가 쫓아온다. 범벅 한 덩이를 던져 주고 그 사이에 천리, 만리를 뛰어가고, 또 한 덩이를 내던져 먹는 사이 수만 리를 지나갔다. 무릎에 차는 물, 잔등에 차는 물, 목까지 차는 물을 건너가자 서천꽃밭이 나타났다.

할락궁이는 본메본장(증거물)으로 얼레빗을 꺼내 꽃감관에게 보인다. 꽃감관은 자신이 지닌 반쪽 얼레빗과 맞춰 보고 아들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할락궁이가 올 때 건너던 무릎에 차는 물, 잔등에 차는 물, 목까지 차는 물은 어머니가 제인장자에게 초대김, 이대김, 삼대김, 세 번 고문당하던 물임을 알려준다. 그때야 할락궁이는 어머니가 제인장재에게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

아버지는 할락궁이를 서천꽃밭으로 데려 갔다. 꽃밭에는 사람을 죽여 멸망시키는 수레멜망악심꽃,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환생꽃, 양천 웃음이 터지게 하는 웃음웃을꽃, 아버지는 하나 하나 꽃들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돌아가 원수를 갚고 어머니를 살리라고 알려준다.

할락궁이는 제인장자의 일가친척을 불러 모아 웃음꽃을 뿌려 웃음판을 벌이고, 싸움싸울꽃을 뿌려 패싸움이 벌어지게 한 뒤, 수레멜망악심

꽃을 뿌려 일가 친족을 모조리 죽였다. 작은 딸 하나만 살려서 어머니를 죽여 던져 버린 곳을 가르치게 하였다. 어머니는 머리는 끊어 청대밭에, 잔둥이는 흑대밭에, 무릎은 띠밭에 던져 놓아 뼈만 살그랑하게 있는 것이다. 뼈를 모아 환생꽃을 뿌리니, “아이고 봄잠 오래도 잤다” 하며 어머니는 살아났다. 그때 원강암이클 대밭·띠밭에 죽여 던졌던 법으로, 곳을 할 때, 대 한 줌, 띠 한줌을 두 손에 들어 이를 사악한 재해를 주는 수레멜망악심꽃이라 한다. 할락궁이는 어머니를 모셔 서천꽃밭에 들어가 아버지를 이어 꽃감관이 되었다.

<이공본풀이>는 ‘꽃의 뿌리’이다. 생명꽃·번성꽃·환생꽃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고, 자손을 번성시키는 꽃이 있는가 하면, 웃음꽃처럼 울고 웃기는 꽃이 있고, 멸망꽃·악심꽃처럼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게 하는 꽃이 있다. 이러한 꽃이 있는 곳이 서천꽃밭이다. 심방은 곳을 하여 서천꽃밭(神界)의 생명의 주화(呪花)를 따다 곳을 하는 집안(人間界)의 인간을 살려내는 무의(巫醫)의 역할을 한다.

3) 삼공본풀이

옛날 윗마을에는 강이영성이서불이라는 남자 거지가 살고, 아랫마을에는 흥은소천궁에궁전궁납이라는 여자 거지가 살았다. 흥년이 들어 얻어먹으러 가는 도중 두 거지는 서로 만나 부부가 되어 살게 되자 얼마 없어 딸아기를 낳았다. 사람들은 거지 부부를 동정하여 정성으로 온갖 룻에 죽을 쑤어 먹였다. 이 아이를 ‘은장아기’라 불렀다. 또 딸아기를 낳았다. 이번에도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었다. 처음만은 못했으나 낫그 룻에 밥을 해다 키워 주었다. 이 아이를 ‘낫장아기’라 불렀다. 또 딸아기를 낳았다.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기는 했으나 성의는 식어 있었다. 나무 바가지에 밥을 해다 먹여 키워 주는 것이다. 이 아이를 ‘가문장아기’라 불렀다.

세 딸아이가 태어나니 이상하게도 운이 띄어 기와집에 풍경을 달고 부자로 살게 되었다. 하루는 딸들을 불러 호강이나 피우고 싶어졌다.

만딸부터 불렀다.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입고 행동하느냐?” “하느님 덕이외다. 지하님 덕이외다. 아버님 어머님 덕이외다.” 이 말을 듣고 흡족해 하며, 이번에는 둘째 딸을 불렀다.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입고 행동하느냐?” “하느님 덕이외다. 지하님 덕이외다. 아버님 어머님 덕이외다.” 역시 만족하며 셋째 딸을 불렀다.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입고 행동하느냐?” “하느님 덕이요 지하님 덕이요 아버님 어머님 덕이외다 마는 나 배꼽 아래 선그릇(陰部)의 덕으로 먹고 입고 행동합니다.” 부모는 화가 벌컥 났다. “이런 불효 막심한 년, 어서 당장 나가라.” 벼락 같은 호통을 치며 집을 나가라고 쫓아 버리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부부는 가만히 앉아 먹고 쓰다 보니 가산을 탕진하여 다시 거지가 되었다.

가문장아기는 정처 없이 길을 걸었다. 해는 서산에 기울고 있었다. 한참 가다 보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있었다. 거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하룻밤만 재워 달라 부탁하니, 아들이 삼형제나 있어 누워 잘 방이 없다 한다. 부엌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재워 달라 사정하여 겨우 허락을 받았다. 이 집은 삼형제가 마를 파다 먹고사는 마통이네 집이었다. 세 마통이가 마를 파고 집으로 돌아왔다. 세 형제는 파 가지고 온 마를 삶아서 저녁을 준비한다. 큰 마통이가 마를 삶았다. “어머니 아버지는 먼저 나서 많이 먹었으니, 마 모가지나 먹읍서” 하며 머리 부분을 드리고 자기는 살 많은 잔등을 먹고, 손님에게는 꼬리 부분을 준다. 둘째 마통이도 마를 삶아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머리를, 자기는 살 많은 잔등을 먹고, 손님에게는 꼬리 부분을 준다. 셋째 마통이는 마를 삶는다. “어머니 아버지 우릴 낳아 기르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고, 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이 많은 잔등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었다. 가문장아기는 마 삶던 솥을 깨끗이 씻은 후, 나락 쌀을 씻어 밥을 지었다. 한 상 차리고 우선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들어갔다. 조상 대에도 아니 먹었던 것이라며 먹지 아니한다. 큰 마통이도 조상 대에도 아니 먹던 것이라 사양한다. 둘째 마통이도 마찬가지로 사양한다.

마지막으로 작은 마통이에게 밥상을 들여가니 활짝 웃으며 맛있게 밥을 먹는다. 저녁이 끝나고 모두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가문장아기는 작은 마통이와 백년 가약을 맺었다. 가문장아기는 마파던 데를 구경가자 하고 손목을 잡고 마파던 들판으로 나갔다. 큰 마통이 파던 데는 똥물이 가득하고, 둘째 마통이 파던 데는 뽕과 지내가 득실하고, 작은 마통이 마파던 데는 자갈이라 던져 버린 것을 주워서 살펴 보니 모두가 금이었다. 금덩이를 주워 마소에 싣고 돌아오니, 일시에 마소 전답이 생기고 높은 기와집을 지어 천하 거부로 잘 살게 되었다.

가문장아기는 부모 생각이 간절하였다. 남편과 의논하여 거지잔치를 석달 열흘 백일 동안 열기로 하였다. 잔치가 시작되자 사방에서 거지들이 모여들었으나 어머니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100일이 되어 잔치를 마무리하는 날이었다. 날이 거의 저물 무렵 눈익은 거지가 보였다. 날이 저물고 잔치가 끝날 무렵, 가문장아기는 계집종을 시켜 이 부부 거지를 사랑방으로 모시게 했다. 통영칠반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고 귀한 약주로 대접하였다.

가문장아기가 말을 걸었다. 살아온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다. 두 부부 거지는 살아온 이야기를 노래하였다. 눈물을 흘리며 듣던 가문장아기는 “제가 가문장아기예요 내 술 한잔 받으세요”하자 “응! 네가 가문장아기?” 부부는 깜짝 놀라 받아 든 술잔을 툇 떨어뜨리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었다.

<삼공본풀이>의 신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연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삼공맞이>다. 이 <삼공맞이>를 <전상놀이>라 한다. 그 까닭은 거지잔치에서 가문장아기를 만난 거지 부부가 눈을 뜬 뒤, 지팡이를 가지고 본주의 집안 식구들을 때리며, 몸 속에 있는 나쁜 전상을 내쫓는 ‘전상을 내 놀리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전상놀이>라 한다. 제주도에서 ‘전상’은 ‘소록’이라고도 말한다. 좋은 전상을 ‘상소록’, 나쁜 전상을 ‘하소록’이라 한다. ‘전상’은 고쳐지지 않는 ‘버릇’, ‘주특기’, ‘병’ 등을 뜻

하는 듯하고, 그 어원은 '전생(前生)의 업보(業報)'를 뜻하는 '전생'인 듯하다.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것은 '좋은 전상'이요, 술 잘먹는 것은 '나쁜 전상'이라 한다. 착한 마음은 '상소록'이요, 머리 아픈 병은 '하소록'이다. 거지 차림의 부부는 사실 굶 중의 소무들이기 때문에 지팡이를 잡고, 본주가 주는 인정을 받고는 집안 식구들의 나쁜 전상을 때려서 쫓아 주기 때문에 <전상놀이>라 하는 것이다.

부모는 딸을 낳았기 때문에 부자로 살게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은 천지부모의 덕이라 주장한다. 가부장적 사회통념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문장아기는 천지부모의 덕이기도 하지만,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이는 제주 여성의 주체적인 삶, 타고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봉건주의에 대한 저항하는 제주 여성의 현실주의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다. 여성해방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삼공본풀이>는 제주설화의 화법¹⁰⁾(YYN or NNY)을 지니고 있으며, 설화에 나타난 민중성으로 보아 근원 설화의 재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테면, 발복 설화, 온달 설화, 서동 설화, 심청 설화, 개안 설화 등에 대한 재해석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4. 신화적 상상력과 제주 문화

신화는 굿법과 인간 세계의 삶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신화의 주인공을 모시고 굿을 한다. 신화 속의 여신은 '맑고 맑은 조상'이며, '천하일색'이다. 남신은 '봉애눈을 부릅뜨고 삼각수를 거스르며, 천근 활, 천근 살, 기치 창검을 들고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 '밥도 장군, 술도 장군, 힘도 장군'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신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어떤 모습일까. 신들의 영력과 기품을 어떤 모습으로 형

10) 제주설화 화법의 일반 유형은 말녀반동형(末女反動型)이다. 3남말녀 혼인형(三男末女婚姻型)이다.

상화 할 수 있을까? 하늘 나라를 다스리는 천지왕, 저승을 다스리는 염라대왕, 열다섯 십오세까지 아이를 낳게하고 길러주는 삼승할망, 한라산과 오름을 창조한 여신 설문대 할망, 토산 여드레 할망 등은 저마다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신의 영력과 미모를 구비한 신들의 모습은 제주인의 신화적 상상력과 미의식의 소산이다. 그러므로 1만 8천 신들의 형상화 작업은 제주 문화의 뿌리를 밝히는 작업이다. 그것은 문화의 창조적 해석이며 문화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이다.

1) 설문대 할망

설문대할망 신화는 거녀 신화(巨女神話)다. 신화에 의하면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을 인격화한 자연신이며, 천지창조의 여신(女神)이며, 오름(峰)을 만든 신이며, '바람의 신'이다. 제주도에서는 여신을 '할망'이라 한다. 그리고 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생을 누린다. 여신으로서의 할망은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녀의 모습은 완숙한 중년의 여신상으로 그려져야 한다. 그녀는 오백 장군(奇巖絶壁)을 낳은 다산(多産)의 산육신이며, 팔죽을 끓여(팔죽을 끓이는 모습은 화산의 용암이 끓는 모습과도 같다) 오백의 장군들을 먹어 살리는 육아(育兒)의 신이다. 그러나 그녀는 탐라 백성들에게 그녀의 알몸의 아름다움을 가려줄 속옷을 주문했다. 그녀의 주문은 천지 창조와 함께 수줍음과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 입는 예절, 문명의 시작을 암시한다. 그녀는 탐라계 꼭처럼 아슬아슬하게 사타구니가 드러날 듯 말 듯한 자세로 누워 있는 한라산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육지와 다리를 놓을 수 없는 아쉬움을 나타낸다. 과학적으로는 태고에는 제주도가 대륙봉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암유(暗喻)한다.

2) 자지명왕 아기씨

초공의 어머니 자지명왕 아기씨의 이름은 '이산 줄이 뽕고, 저산 줄

이 뻘어 왕대월산 금하늘 노가단풍 지지명왕 아기씨'라는 긴 이름이다. 이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한다. 그것은 황금빛 노을과 붉게 물든 단풍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녀의 미모는 자연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이다. 여인의 자연미라고나 할까. 가장 자연스럽고 단풍 든 산처럼 눈부신 아름다움이다.

3) 명진국 따님과 동해용궁 따님

아이를 열 다섯 십오 세까지 보살피는 명진국과 삼승 할망 아이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구삼승 할망 동해 용궁은 미모에 있어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두 여인의 차이는 하늘 옥황 명진국과 동해 용궁이라는 출생의 차이, 은실 같은 손으로 산모의 배를 쓸어 아기를 낳게 하는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하는 차이, 그리고 한 손에 번성꽃·생명꽃·환생꽃을 들고 아기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느냐, 수레멜망약심꽃을 들고 아기를 저승으로 데려가느냐 하는 차이이다. 두 여인의 아름다움은 생·사, 선·악의 차이이다.

4) 가문장 아기

가문장 아기는 부모님에게 '내 배꼽 밑에 선그릇[陰門] 덕에 산다'고 주장하다 쫓겨난 여인이다. 맹목적인 효 관념보다 삶의 현실성을 중시하는 일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이다. 그녀는 사랑하고 부부 인연을 맺어 재화를 벌어들여 복을 누리는 것이 '여인'으로 타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디에 던져 놓아도 내 복대로 산다는 것이다. 이 여인을 통하여 어디에 던져 놓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일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다.

5) 지장 아기씨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이라고는 하나 없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다. 마음씨 곱고 착한 지장 아기씨는 결혼을 했으나, 시집가서도

남편과 시부모 죽고 아들까지 죽어버린다. '내 년의 팔자야'하며 팔자 사주가 기구함을 한탄하며, 이 여인은 결국 부처님에게 정성을 다하여 불공을 드린다. 지성으로 부모 조상과 시부모 조상의 한을 풀어드렸다. 그리하여 이 비련의 여인은 죽어 새의 몸으로 환생하였다. 고독한 비극의 주인공이며 청순 가련형의 미인이다.

6) 자청비

옛날 김진국 대감과 자진국 부인이 부부가 되어 살았다. 가재와 전답이 많고 비복을 거느려 부러울 것 없는 살림이었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어, 동개남 은증절에 가서 석달 열흘 백일 불공을 드리고, 합궁일을 받아 천정배필을 맺어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친하일색이었다. 이름은 자청하여 낳은 자식이라 '자청비'라 하였다.

농경신 자청비는 뛰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남성을 능가하는 문장, 비단 짜는 솜씨, 수수께끼를 푸는 지혜, 위기를 넘기는 기지, 하늘과 땅을 떠돌아 다니는 방랑벽, 남장을 하여 여인을 올리는 양성적 성격, 야수처럼 할딱이는 목축신 태우리 정수남이를 어르고 달래는 모성, 서천 꽃밭 황새곤간의 딸을 위하여 문도령을 보내는 사랑의 관용, 막대기를 잘라 바지 가랑이에 넣고 문도령보다 멀리 나가는 오줌발의 정력, 하늘 나라의 난리를 평정하는 무용, 그 공으로 오곡의 씨를 얻어 지상에 내려와 농경신이 되기까지의 자청비는 사랑과 낭만과 열정의 여인이다.

7) 양씨 아미

양씨 아미는 춤 잘 추고 소리 잘 하는 친하일색이었다. 심방이 되어 맘껏 춤을 추고 노래도 하고 싶었지만, 완강한 큰 오라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열 다섯 살 때 어머니가 죽자 신촌 사는 이원신 심방을 데려다가 전세남굿을¹¹⁾ 했다. 양씨 아미도 신이 들렸는지, 심방처럼 나서서 춤만 추려 하고, 미쳐서 한라산 물장오리¹²⁾ 테역장오리

11) '전세남굿'은 부정을 씻고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는 굿.

올라가 고사릿대 꺾어 신칼 삼아 어머니 질치는(길을 닦는) 곳을 하였다. 마음씨 나쁜 큰오라비는 양반 집에 사당공정¹³⁾ 났다고, 머리채를 잡고 잡아다 방안에 가둬버렸다. 몇 해를 밥도 안 주며 굶겼는데 그래도 맘씨 좋은 작은오빠는 창구멍을 뚫고 보릿대를 꺾어 물도 먹이고 산딸기도 따다 주었다. 결국 강단 센 큰 오라비가 개고기 **똥**인 국물에 목욕시켜 가둬버리자, 양씨 아미는 오월 스무 나흘 날 세갑머리 칼산질산¹⁴⁾ 다 흩어놓고 파리하게 굶어 죽었다. 마음씨 착한 양씨 아미는 죽어서 서천 꽃밭에 올라가 서천꽃밭에 물을 주는 일을 맡았다. 맘이 좋아 서천꽃밭에 올라갔지마는, 개 **똥**린 국물로 몸이 부정하여 양씨 아미가 물주면 꽃들은 모두 검뉴울꽃¹⁵⁾이 되어버렸다. 꽃감관은 양씨 아미를 부정하다 하여 서천 꽃밭에서 이승으로 쫓아버렸다. 인간 세상에 내려와 보니 시체는 파묻어 몸친[肉身]은 간 데 없고, 그러니 저승도 못 가고 이승도 못 오고, 고전적 영감을 영혼을 따라 놀미 와산¹⁶⁾ 큰 곳하는 데 내려왔다. 양씨 아미는 춤추고 노래하지 못해 한을 품어 죽은 예술의 신이다.

8) 토산 여드렛도

토산 여드렛도는 미모와 순결의 여신이다. 그녀의 결백성은 싸늘하기까지 하다. 순결과 외로움은 원한을 만들고, 그 수하에 왜구에게 겁탈당하여 죽은 원령을 거느리고 있다. 뱀이 꼬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노여움은 인간의 몸에 맺혀 방울이 되어 몸속에 병을 만든다. 그녀의 한을 풀어주면 몸에 맺힌 방울이 풀린다. 아름답지만 차디찬 외로움의 아름다움을 지닌 모습이다.

12) 한라산에 있는 지명.

13) 다툼 일이, 시끄러운 일이.

14) 형크러진 모양.

15) 시들어 죽어가는 꽃

16) 조천읍 와산리(朝天邑 臥山里), '눈미' 또는 '놀미'는 와산(臥山)의 옛지명.

9) 조왕할망

문전본풀이에 나오는 여산부인 집안의 가계를 계획하는 여신이다. 육지에 무역장사 나갔다 노일저대구일의 딸의 피임에 빠져 밀천을 다 빼앗겨 채밥만 얻어먹고 석달 열흘 백일만에 영양실조로 장님이 된 남편을 구하러 갔다가 서천강 연화못에 빠져 죽은 착한 여인이다. 똑똑하고 역력한 막내 아들 늑디생이가 선천꽃밭 환생꽃을 꺾어다가 연못의 물을 다 퍼내고 어머니의 뼈에 살 오를 꽃 피오를꽃 환생꽃을 뿌려 어머니를 살려 낸다. 이 여인은 늘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몸이 시려 늑디생이는 어머니를 조왕 할망으로 모시게 되었다. 마음씨와 몸가짐이 깨끗한 여신이며, 가정 주부의 신이다.

10) 무신도의 미녀들

내왓당 무신도는 제주 무속의 특징을 인상깊게 보여준다.

의상의 빛깔은 진녹색과 적색을 주조로 한다. 신화에 등장하는 처녀 신들이 한결 같이 '진녹색 저고리와 연반물 치마'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면, 녹색과 적색은 민중의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신성한 색이다. 제주는 옷감이 귀한 곳이고 더구나 색깔이 화려한 옷감은 신의(神衣)를 만드는 신성한 옷감이다. 삼색은 빨강·노랑·초록(또는 남색)이다. 이러한 삼색물색을 신에게 바치는 것은 신앙민들이 신의 옷을 만들어 올리는 대신 옷감을 조금씩 끊어다 바치는 것이다. 창조신인 설문대 할망에게 제주 사람들이 명주를 조금씩 바쳐 신의 옷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관념이다. 그러므로 삼색 물색의 옷감을 바치며 그 옷감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은 신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무신도는 그러한 제주 사람의 신관념의 상상도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신들의 의상은 굿에 자주 등장하는 양반의 관복차림 '남수와지 적쾌지(藍水禾紬 赤快子)'와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쪽빛 명주 두루마기에 붉은 쾌자, 여기서도 적색과 남색이 신의 의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원색의 화려함은 제주 민중의 만들어낸 신의 위엄과 신성성을 더욱 빛낸다. 무신도는 색

채의 신비와 함께 제주 민중들의 신관념이 짙게 투영되어 있다. 신들의 모습은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을 준다. 그리고 신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권능과 영력을 과시하는 듯한 주술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다양하고 화려하다. 과장되고 장난기를 보이면서도 서투름 없이 묘사한다. 내왓당 무신도의 과감하고 세련된 선의 묘사는 민화의 최고의 경지를 보여준다.

민중의 상상력과 신관념이 대담하고 회화적이면서도 신비롭고 괴기(怪奇)감을 느끼도록 묘사된 것이다. 아무튼 내왓당 무신도는 제주 민중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최대의 걸작이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소위 1만 8천 신이라 할만한 신들이 있어 제각기 다양한 역할과 능력, 개성과 용모를 지니고 그들의 세계를 펼치고 있다. 이들의 위용과 업적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영력이며, 이승의 질서를 지켜주는 계물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신들의 내력담이라는 이러한 본풀이는 제주 사람들의 신화적 상상력이 만들어 낸 것이었다.

5. 신화 공원의 가능성

신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다. 타락한 세기말 세상에 서서 우리의 '뿌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신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복 받을 만한 일이다. 제주도는 우리가 믿는 1만 8천 신들의 고향이며, 우리의 태줄을 묶은 태 사른 땅이다. 신들이 나타나 인간들의 세계를 열고, 인간과 더불어 살아왔다는 신화 상상력의 세계는 오랫동안 제주인이 척박한 자연과 수난의 역사 속에 토대를 쌓고 삶의 공동체를 이룩해 온 문화 형성력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태껏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신들과 더불어 살아왔다. 우리의 신들은 1만 8천 신들이라고 자랑한다. 이때 우리의 신들은 땅과 사람과 어떤 초자연적인 영성이 모두 하나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의 신들로서 우리의 혈연, 지연 조상이라 믿는다. 그것이 제주인의 종교 심성이며 신앙이었다.

제주의 1만 8천 신들이 죽지 않고 제주인과 더불어 살아 있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 토대가 건재하다는 것이며, 제주도가 세계 속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주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 또한 제주도가 신들의 거룩한 성지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주는 분명 우주의 중심에 있고, 태초에서부터 오늘까지 신화와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거룩한 성지라면, 1만 8천 신들의 고향에 신화적 상상력을 가지고 신들을 형상화하여 재현하여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제주시의 테마 공원을 조성 계획은 당연히 해야 할 우리들의 사업이었다.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전통 문화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 나아가 전통 문화의 관광 자원화 방편이었기에 각계의 여론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리 아름다운 제주의 하늘에는 하늘 차치한 천지왕, 저승을 차치한 신 대별왕과 이승을 차치한 신 소별왕이 살고, 한라산과 오름을 설문대 할망이 창조하였으며, 미모의 농경신 자청비와 문도령 미운 테우리신 정이오신정수냄이, 이이를 열다섯 살까지 키워주는 미모의 연신 삼승할망 명진국 따님아기,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심방이 되어 고통을 하였다는 무조 젓부기 삼형제, 생명꽃, 번성꽃을 가져다가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서천 꽃밭 꽃감관과 할락궁이, 삼공 알망 주년국의 삼공신 마통이와 가문장아기, 악기의 신 너사무 너도령과 바람의 신 비름웃도가 우리의 신이라고 믿는 제주인들이 미신이나 악마에 물든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인가. '어주에 삼늬거리', '서강배포탕', '황금산 도단탕', '적금산', '굴미굴산 노조방산 아야산 신산꽃', '동개남 은증절', '서천강 연화못' 등 신화의 세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모든 본풀이는 '신들의 이야기'이며, 전통 문화의 원형이며, 뿌리이다.

1만 8천 신들의 이야기와 테마 공원 조성은 제주 전통 문화의 세계화이며 성역화, 관광 자원화 작업이다. 20세기를 마감하는 세기말의 종교는 주위에 사는 다른 사람들, 신앙과 사상과 계급과 계층의 다른 사람들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제주의 1만 8천 신들은

서양에서 들어온 신들이나 종교를 이단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 모든 신들과 신앙민들의 화해를 바란다. 1만 8천 신들은 제주인의 신화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문화 형성력의 소산이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문화와 전통을 가르치고 신화를 통해, 그리고 신화의 형상화를 통해 천지 창조로부터 인간 세상이 열리기까지 제주 사람을 수호해 주시는 신들의 세계를 일깨워주고,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탐라라는 거룩한 성지 순례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 미신인가. 자본주의에 의해 인간성이 타락되고, 기계 문명에 의해 획일화되고 매말라 가는 사회, 체제나 권력과 야합하며 비대해진 교단 교파를 지닌 현대 종교의 횡포, 세계화란 이름 아래 강대국의 경제 논리에 편입되며 좌표없이 끌려가는 IMF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21세기 재무장을 선언한다. 그것은 알팍한 종교 집단의 이기주의보다는 제주 문화의 토대를 굳건히 하면서 우리의 정신적 토대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